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갈라디아서 6:11-18

【인도자를 위한 예화】

불교에서 사리는 유신(遺身) 혹은 신골(身骨)이라 불리며, 수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가리킵니다. 역사적 기원은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가모니는 BC 563년 고대 인도 샤카 부족의 소왕국인 카필라의 왕세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29세 때 왕세자 자리를 버리고 출가해 오랜 수행 끝에 보리수나무 밑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남은 평생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고 8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인도 장례 예법에 따라 그의 시신을 화장했는데, 그때 그의 몸에서 사리가 나왔고 여덟 개의 부족이 그것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200여 년 후, 최초로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왕이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아 다시 세분해 8만 4,000개의 불사리탑을 세웁니다. 불교에서는 이 탑을 석가모니의 무덤이자 그를 경배하는 장소로 여기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불교뿐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도 창시자의 무덤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신이나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모두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미 죽은 존재를 경배하지만, 기독교는 살아 계신 분을 경배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요 자랑이 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본문 읽기】 갈라디아서 6:11-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갈라디아서는 소위 '로마서의 개요'로 불리며, 로마서의 핵심인 이신칭의(以信得義)에 대한 원리를 기본 주제로 삼습니다. 로마서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이신칭의 원리 자체를 논했다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서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성도들에게 이신칭의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다시 돌아올 것을 주장하는 일종의 변증서라 할 수 있습니다(2:16). 당시 구약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믿음 외에도 할례와 같은 구약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상반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1:6).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무용하게 만들기 위해 바울에게 사도적 권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지고,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역설합니다. 더불어 율법의 행위에 따른 구원은 율법의 속박과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3:10~14),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2:1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변증합니다(5:6).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할례받은 육체를 자랑한 유대주의자들과 달리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나요?(14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강조한 것과 달리,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적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13절). 그들은 특히 할례를 율법의 핵심으로 간주해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할례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바울이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자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행 21:27-36).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할례를 더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율법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들 덕분에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받는 핍박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지적하며, 자신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18).

적용과 나눔 I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 삶에 여전히 남아 있는 종교적 외식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한번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할례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를 떠난 일이 있습니다(2:12). 베드로의 행동은 주변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외식하게 했습니다(2:13). 이 일에 대해 바울은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게 행동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2:11, 14).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밑바탕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도자나 구성원에게 비난받기를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 하거나,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사 29:13).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향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1:10). 그리스도인은 마음, 생각, 시선, 행동 등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외식을 버리고,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II

편지를 마무리하며 바울은 그의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나요?(17절)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당시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분과 함께 먹고 자며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도가 된 바울에게는 정통 사도들과 같은 사도의 권위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해 사도가 되었음을 밝힙니다(1:1). 또한 그들의 헛된 의심을 일축하고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처 자국'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하며 바울이 당한 온갖 핍박, 고난, 아픔, 상처 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날마다 염려하는 등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경험을 했습니다(고후 11:23~33). 바울은 그 모든 경험을 실패와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II

그리스도인답게 살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어려움 또는 고통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한 핍박이나 고난과 같은 경험을 하는 일이 드뭅니다. 물론 지금도 과격한 이슬람 단체나 급진적인 반기독교 단체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 그리스도인의 진리적 편협성에 대한 불편함 등으로 인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때 성도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고후 12:10)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